



질경이 / *Plantago asiatica* L.

| 구분 | 설명 |
|------|------|
| 생물분류 | 식물 |
| 속국명 | 질경이속 |
| 과국명 | 질경이과 |

| | |
|--------------------|---|
| <p>과명</p> | <p>Plantaginaceae</p> |
| <p>일반특징</p> | <p>요약설명 : 질경이과 여러해살이풀로 일본, 사할린, 중국, 동시베리아, 말레이시아에 분포한다. 분포지역 : 일본, 사할린, 중국, 동시베리아, 말레이시아에 분포한다. 전국에 야생한다. 형태 : 여러해살이풀 크기 : 꽃대가 높이 10-50cm 정도 자란다. 꽃색 : 백색 개화기 : 6월, 7월, 8월 많은 잎이 뿌리에서 퍼진다. 잎자루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부분 잎과 길이가 비슷하다. 또한 밑부분이 넓어져서 서로 얼싸 안는다. 잎은 타원 모양 또는 달걀 모양이며 끝이 날카롭거나 뭉뚝하다. 밑은 둥글며 나란히맥이 있고 가장자리가 물결모양이다. 꽃은 6~8월에 하얀색으로 피고, 잎 사이에서 꽃대가 나와 잔꽃이 이삭꽃차례로 촘촘히 달린다. 꽃이삭은 털이 없다. 꽃을 보호하는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이고 꽃받침보다 짧으며 대가 거의 없다. 꽃받침은 4개로 갈라진다. 꽃받침조각은 거꾸로 선 달걀 같은 타원 모양이며 끝이 둥글고 하얀색의 얇은 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뒷면은 초록색이고 중앙 부분에 붉은 맥이 있다. 꽃잎 전체는 깔때기 모양이고 끝이 4개로 갈라진다. 수술은 길게 밖으로 나오고 씨방은 꽃받침 위에 있다. 암술은 1개 있다. 열매는 삭과고 양 끝이 뾰족한 원기둥 모양이며 꽃받침보다 2배 정도 길다. 익으면 옆으로 갈라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6~8개의 검은 씨앗이 나온다. 씨앗을 약재로 쓸 때, 차전자()라 부르기도 한다. 원줄기는 없고 많은 잎이 뿌리에서 나와 옆으로 비스듬하게 퍼진다. 뿌리줄기는 짧고 수염뿌리와 뿌리잎이 뭉쳐난다. 길가 또는 빈 땅에서 흔하게 자란다. 씨앗으로 번식한다. 풀 전체를 약재로 쓸 때, 차전초()라 부른다.</p> |